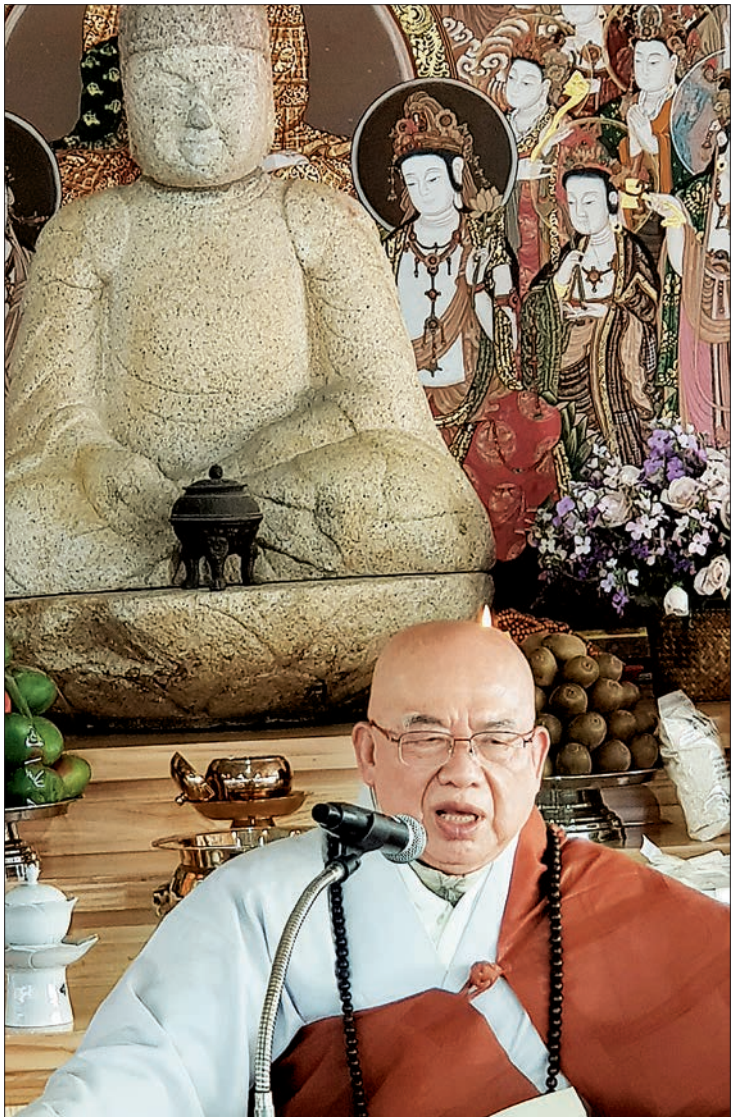


“산중불교 이제 도심으로 내려와 중생과 부대껴야”



통도사 전 주지 원산스님 상월선원서 법문

영축총림 통도사 전 주지 원산스님이 신도들과 함께 위례 상월선원을 찾았다. 원산스님은 1월16일 상월선원 천막법당에서 법문하며, 한국불교는 산중을 넘어서 이제 도심으로 내려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아파트 건축이 한창인 위례신도시에 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제상좌 진각스님 등 9명 스님들이 천막법당을 세워 90일 엄동설한에 안거에 들어갔다”며 “하루 한 끼 공양하고 머리도 안 깎고 수염도 안 깎고 목욕할 데도 없으니 목욕도 못하고 하루 14시간 정진하는 천막결사는 본인으 말할 것도 없고 불교계 종단의 큰 불사가 아닐 수 없다”고 칭찬했다.

원산스님은 자승스님이 위례신도시에 수행터를 잡았다는 얘기를 듣고 잘 잡았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결사 초기부터 왜 번잡한 이곳에 선원을 마련해 정진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던 것과 대조적이다. 제기된 의문에 대해 스님은 “불교가 이제 조용한 곳

시끄러운 가운데 얻은 득력
조용하게 공부한 힘보다 커

중생과 부대끼며 생활해야
부처님 법 잘 전할 수 있어

천막결사로 수행문화 확산
불교 위상 높아지는 계기

만 찾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시중에 사는 중생들과 같이 부대끼고 생활해야 부처님 법을 더 잘 전할 수 있다”며 “한국불교는 이제 산중불교에서 시중불교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산스님은 <육조단경>과 <서장>을 들어 부연했다. 혜능스님은 <육조단경>에서 ‘불법재세간(佛法在世間) 불리세간각(不離世間覺)’라고 해 부처님 법은 산 중이 아닌 세간에 있고, 세간과 분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대혜종고스님은 <서장>에서 시끄러운 가운데서 공부해 득력을 하면 고요한 가운데

공부해서 힘을 얻는 것보다 몇 천배나 강하다고 했다.

새소리 물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산중에서 조용히 앉아 있으면 저절로 공부가 되지만, 시끄러움을 벗어나 공부하려면 그만큼 집중하고 노력해야 한다. 스님 또한 직지사에서 7년을 지냈는데, 시끌벅적함 속에서 공부해야 했다고 한다. “내일 논가를 하려면 오늘 반드시 책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며 “간절함이 있을 때 시끄러운 가운데 공부가 된다”고 했다.

시끄러운 경계를 떠나 오직 화두일념, 참선 정진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조사 스님들은 시끄러운 가운데 공부한 힘이 고요한 가운데 공부하는 힘보다 뛰어나다고 했다.

천막결사를 지켜보며 스님은 “젊었다면 여기서 함께 정진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원효스님은 과거불행(破車不行)이요 노인불수(老人不修)라, 깨진 수레는 갈 수 없고 노인은 막을 수 없다고 했다. 팔순을 넘긴 원산스님은 이제 다리로 아프고 하리도 아픈 나이가 됐지만 상월선원에 와서 여러 대중과 깨달음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 있어 좋다고 했다.

또 “상월선원 청구가 워낙 엄격해 역시 또 하라고 하면 남이 있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자발적으로 고행을 택한 천막결사

를 계기로 불교가 좀 달라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어 “불교는 수행의 종교이고 깨달음의 종교이며, 깨달음을 중생에게 회향하는 종교”임을 강조하며 “공부가 없으면 불교가 있을 수 없다. 젊을수록 열심히 정진하라”고 당부했다.

<초발심자경문>에는 ‘위타위기수미선(爲他爲己難離善)’이나 개시윤회생사인(皆是輪廻生死因)이라. 원입송풍나월하(願入松風蘿月下)하야 장관무루조사선(長觀無漏祖師禪)이라는 구절이 있다. 착한 일하고 남을 위해 나를 위해 좋은 일하지만 그것은 다 생사윤회를 일으킨다. 소나무 바람 침침을 그늘에 앉아 조사선, 깨달음을 구하라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1주일 밤낮으로 한 생각이 연속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다. 원산스님은 “외도하는 사람은 화두를 들어 깨달음을 얻고, 염불하는 사람은 염불해서 일심불란하면 바로 극락세계 아미타불을 진견할 수 있다”며 “해제 전 1주일간 용맹정진한다고 하는데 여러 사람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나올 것 같다”는 기대감을 전했다.

또 “한국불교가 새로 태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상월선원 정진 스님들 모두 건강하고 여러분도 인연공덕으로 모든 서원 같이 이뤄지길 발원한다”고 법문을 마무리했다.

어현경 기자 eonaldo@ibulgyo.com

“2월7일 낮 1시 상월선원 門 열린다”

설 명절을 일주일 앞둔 1월18일, 위례 상월선원 천막법당에서는 기도소리가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이어졌다. 오전부터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주지 경우스님) 본말사와 경기도 광주 장경사 진광스님과 신도 1000여 명이 기도했고, 가수 장사익 씨가 찾아와 신명나는 공연을 펼쳤다. 오후에는 오산 대각사 주지 정호스님과 신도들, 포교사단 출신, 충북지역단 포교사들이 찾아왔고, 밤에는 ‘화합과 공존 상생을 위한 중앙총회 회원 용맹정진’이 이어졌다.

오산 대각사 주지 정호스님은 “전국 불자들이 시간을 내 응원 기도해주는 힘을 받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니 고마운 마음 뿐”이라며 “20여 일 정도 남았는데 다른 바람은 없고 낙오 없이 건강하게 해제하길 바란다. 2월7일 해제일에는 각처

응원 발길 이어지는 상월선원
총회위원과 중앙신도회 임원
선운사 본말사, 오산 대각사
박양우 문체부 장관도 방문

신도들이 함께 모여 회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년회원을 20여 명과 함께 왔다는 김은정 대각사 청년회장은 “추운 선원에서 하루 한 끼 드시며 3개월간 결사하는 스님들 소식을 신문과 유튜브를 통해 알고 있었다”며 “고행하는 스님들 계신 현장에 와보니 감동적이지만 건강이 걱정된다”고 솔직한 심정을 밝혔다. 이어 “스님들 뜻을 이어 저와 청년회원들은 어린이 청

소년 포교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상월선원과 전국 선원에서 정진하는 스님들의 원력으로 한국불교 흥흥은 물론 우리 사회도 편안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후7시부터 조계종 중앙총회위원 40여 명과 이기흥 중앙신도회장을 비롯한 신도회 임원들 100여 명, 윤성이 동국대 총장과 교직원, 조계사와 불선사 신도 등 200여 명이 용맹정진 했다. 중앙총회 의장 범해스님은 상월선원 결사로 인해 “한국불교가, 조계종단이 사부대중으로부터 감동과 진정성의 종교로 거듭나도록 하는 전환점을 맞을 것”이라며 “한국불교가 원용과 화합의 정신을 회복하고 신심과 감동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 하자”고 당부했다.

중앙총회위원이자 상월선원 총도감인 해일스님은 “천막 안에 정진 중인 스님



1월8일 천막법당에서 봉행된 ‘화합과 공존 상생을 위한 중앙총회 회원 용맹정진’에서 장영스님이 고불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위) 오산 대각사 주지 정호스님과 청년회원과 신도들이 상월선원 울타리에 소원의등을 다는 모습(사진 아래).

들 건강이 좋지 않아 여러 번 응급상황이 벌어졌지만, 의식을 되찾은 스님들이 진료를 거부해 해제까지 그저 누말하기만을 바랄 뿐”이라며 “2월7일 오후1시 쯤 문을 개방할 예정인데, 사부대중이 두루 참석해 아홉 명 스님들이 회향하는 귀한 경험을 공유하자”고 말했다.

앞서 1월17일 해인총림 해인사 주지 현응스님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찾아왔다. 박양우 장관은 “9명 스님들의 숭고한 수행정신이 번잡한 세상의 반목과 갈등을 없애고 국민통합과 화합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국의 많은 스님과 불자들이 함께 기도에 동참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국민정신을 일깨우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앙선관위원장 세영스님과 태성, 해민, 선우, 각의, 득우, 경원스님 등 선관위원 스님들도 상월선원을 방문해 금일 불을 전달했다.

하남=어현경 기자 eonaldo@ibulgyo.com
사진 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해인사승가대학 총동문회 제20대 상임위원 공고

해인사승가대학 총동문회는 제20대 상임위원을 아래와 같이 선출하였습니다. 동문회원께서는 동문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문 1~10기 / 지도위원 11~16기 명예회장 여연(16기, 합천 해인사) 총동문회장 이암(17기, 문수암 주지) 수석부회장 범진(25기, 송광사 주지) 상임부회장 효명(34기, 해원정사 주지) 지일(35기, 내원정사 주지)	부회장단 지연(17기, 천황사 주지) 정일(20기, 보령사 주지) 진각(23기, 반야사 주지) 일광(24기, 향림사 주지) 진화(26기, 송광사 주지) 현진(33기, 마야사 주지) 범상(44기, 대흥사 주지) 한계(17기, 선원사 주지) 지현(20기, 관음사 화주) 지성(23기, 기원정사 주지) 원일(26기, 미륵사 주지) 태성(32기, 문수사 주지) 주경(34기, 수덕사 부주지) 무선(19기, 경덕사 주지) 해월(21기, 금강사 주지) 세경(23기, 수월사 주지) 중회(26기, 모덕사 주지) 원월(32기, 육전암 주지) 선월(34기, 보석사 주지) 승원(19기, 백련사 주지) 상운(22기, 불락사 화주) 밀광(23기, 미륵사 주지) 성원(27기, 선원사 주지) 원일(27기, 창성 백암사) 고경(33기, 환주 상원사) 동진(20기, 인월사 주지) 범명(22기, 경해사 주지) 범우(24기, 해남 대흥사) 경상(26기, 회암대 감원) 해일(32기, 봉곡사 주지) 오성(35기, 신흥사 화주) 신문화위원 영선(18기, 문경 봉암사) 성의(15기, 서울 총림사) 지암(18기, 구례 내원암) 영진(21기, 사천 봉암암) 일수(24기, 창성 백암사) 고경(33기, 환주 상원사) 종현(10기, 합천 용림선원) 도원(17기, 하동 이원아선원) 지근(18기, 영산 최운암) 백담(22기, 합천 용림선원) 의명(24기, 남양주 봉선사) 각선(45기, 서울 감불선원) 지전(13기, 순천 송광사) 위명정 의명(17기, 양평 용문선원) 정현(20기, 문경 대각선원) 지은(22기, 문경 봉암사) 효영(33기, 합천 해인사) 원인(14기, 영주 대흥사) 현대(17기, 공주 선림사) 정현(20기, 문경 대각선원) 정영(22기, 나주 일봉암) 보림(34기, 합천 용림사) 진월(15기, 마곡 고당사) 해월(17기, 울진 평도사) 효종(21기, 김천 직지사) 지현(23기, 부산 문수사) 용영(35기, 문경 삼각암)	간사 도일(35기, 석굴암 주지) 부장단 총무부장 황복(35기, 송학사 주지) 교무부장 정현(40기, 도림사 주지) 문화부장 성원(37기, 보리암 화랑) 포교부장 태성(32기, 문수사 주지) 조직부장 서월(35기, 해인총림을향정) 총무처장 여해(45기, 부산 세조사) 교무처장 진일(46기, 해산 수덕사) 문화처장 효현(46기, 경광사 주지) 포교처장 범월(38기, 영림사 주지) 조직처장 현진(48기, 보림사 주지) 기획처장 현민(38기, 현암사 주지) 재무부장 정현(40기, 선암사 주지) 동원부장 경일(37기, 경곡사 주지) 사감부장 범월(38기, 영림사 주지) 홍보부장 일광(38기, 육전암 주지) 기획처장 대원(47기, 서울 불광사) 재무처장 진일(46기, 하동 국사암) 동원처장 진일(46기, 하동 국사암) 사감처장 일진(47기, 서울 상암암) 홍보처장 인연(47기, 서울 봉은사) 지회장 서울 서울지회 고문 정영(47기, 구름사 화주) 경기 경기지회 고문 일명(37기, 불암사 화주) 인천 인천지회 고문 정일(37기, 전동사 화주) 부산 부산지회 고문 경선(27기, 범어사 주지) 대구 대구지회 고문 경우(27기, 죽림정사 주지) 대전 대전지회 고문 대원(27기, 해원정사 화주) 울산 울산지회 고문 남현(27기, 울산 해남사) 제주 제주지회 고문 우경(47기, 관음사 화주) 서울지회장 원월(27기, 옥천암 주지) 경기지회장 승원(19기, 백련사 주지) 인천지회장 해원(24기, 육불사 주지) 부산지회장 효명(34기, 해원정사 주지) 대구지회장 선월(35기, 대곡사 주지) 대전지회장 정영(39기, 죽림정사 주지) 울산지회장 범명(32기, 동종사 주지) 제주지회장 지일(17기, 현암사 주지) 강원 강원지회 고문 정영(47기, 동명사 주지) 충북 충북지회 고문 월명(37기, 범어사 화주) 충남 충남지회 고문 성경(47기, 해산 수덕사) 전북 전북지회 고문 범현(17기, 선암사 화주) 전남 전남지회 고문 정진(27기, 병행사 화주) 경북 경북지회 고문 범명(47기, 도리사 화주) 경남 경남지회 고문 무원(13기, 합천 해인사) 경원 강원지회 고문 정영(47기, 동명사 주지) 충북 충북지회 고문 월명(37기, 범어사 화주) 충남 충남지회 고문 성경(47기, 해산 수덕사) 전북 전북지회 고문 범현(17기, 선암사 화주) 전남 전남지회 고문 정진(27기, 병행사 화주) 경북 경북지회 고문 범명(47기, 도리사 화주) 경남 경남지회 고문 무원(13기, 합천 해인사) 경원 강원지회 고문 정영(47기, 동명사 주지) 충북 충북지회 고문 월명(37기, 범어사 화주) 충남 충남지회 고문 성경(47기, 해산 수덕사) 전북 전북지회 고문 범현(17기, 선암사 화주) 전남 전남지회 고문 정진(27기, 병행사 화주) 경북 경북지회 고문 범명(47기, 도리사 화주) 경남 경남지회 고문 무원(13기, 합천 해인사)	자문위원 현영(16기, 현암사 주지) 편집위원 성원(30기, 보리암 화랑) 총책연구위원 이민(17기, 문수암 주지) 효명(34기, 해원정사 주지) 현경(40기, 선암사 주지) 교학연구위원 위원장 홍화(15기, 동국대 교수) 부원(23기, 마해사대학 학정) 정현(27기, 경주시 주지) 일해(37기, 해인선원 주지) 진우(49기, 해인사승가대학 교수) 수진(18기, 해원정사 주지) 원소(24기, 상암사 주지) 경성(26기, 회암대 감원) 보현(38기, 김천 직지사) 보일(49기, 해인사승가대학 학정) 지현(20기, 관음사 화주) 범광(25기, 송광사 주지) 원월(32기, 동종사 주지) 진일(47기, 수덕사을향 울림) 범명(51기, 해인사승가대학 교수) 문화예술위원 위원장 동월(20기, 대각사 주지) 일광(23기, 미륵사 주지) 원월(32기, 육전암 주지) 주경(34기, 수덕사 부주지) 수원(21기, 정학암 주지) 해원(24기, 불현사 주지) 관원(32기, 불광사 화주) 성원(34기, 명불암 주지) 성태(21기, 동림사 주지) 원진(24기, 향림사 주지) 원진(33기, 마야사 주지) 경일(37기, 경곡사 주지) 상훈(22기, 불락사 화주) 해원(25기, 관음사 주지) 동은(33기, 현암사 주지) 원우(48기, 보림사 주지) 지전(23기, 반야사 주지) 효종(30기, 합천 해인사) 현종(33기, 현암사 주지)
---	---	---	--